

“군민이 주인인 장성”...郡-주민 지역 발전 머리 맞댔다

비전 수립 간담회 개최...150명 참석
도시재생·청년정책·생활민원 등 논의
건동광산 개발·119센터 승격 등 모색
내년 청년센터 개관·대학생 주거 지원

장성군이 내년도 ‘군민이 주인인 장성’을 목표로, 주요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2026년 비전 수립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한중 군수를 비롯해 군민, 사회단체 관계자, 언론인, 도·군의원,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해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참가자들은 도시재생부터 청년 정책, 생활 민원 등 폭넓은 주제를 가지고 논의했으며, 김한중 군수는 군민들의 질의에 대해 각 사업의 구체적 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장성군은 최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군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비전 수립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갖고 미래 청사진을 공유했다.

〈장성군 제공〉

먼저 지역의 관심사인 ‘장성을 대창지구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 브랜드 거점 구축과 정주 환경 재생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나누어 추진된다. 군은 ‘편백근푸름센터’와 ‘창의목공예센터’를 건립하는 거점 구축 사업의 경우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현재 건축설계 공모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영천로 편백 특화거리 조성’ 등 정주 환경 재생 사업은 올해 안에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3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려시멘트 건동광산 내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광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군은 경제성 검토 등을 위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말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현행 폐석탄 광산뿐만 아니라 건동

광산 같은 석회석 광산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재원 확보 노력도 병행한다. 청년 지원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이어 내년 4월부터는 월 30만원 한도의 대학생 주거비 지원 사업이 신설된다.

시행 첫해인 2026년에는 졸업 예정 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고,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들의 활동 거점이 될 장성을 시가지 내 ‘청년센터’는 올 연말 준공 후 내년 1월께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건의 사항들에 대한 해법도 제시됐다. 서삼면 추암호 데크길 화장실은 탐방로 주차장 인근을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북이면 ‘119지역대’의 ‘119안전센터’ 승격 요청에 대해서는 장성소방서에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승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이번 간담회는 군민의 의견을 모아 내년도 군정의 비전을 바로 세우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과 소통하며 군민이 진정한 주인인 장성의 미래를 희망의 빛으로 채워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곡성군 “올해 최고 시책, 군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내달 10일까지 온·오프라인 투표
바로폰·소아과 상시진료 등 후보
주민 공감 정책 내년 군정에 반영

곡성군이 올 한 해 동안 군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시책’을 군민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27일 곡성군에 따르면 오는 12월10일까지 ‘2025년 곡성군 우수시책 군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과 참여를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군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총 32건의 정책을 대상으로 1차 내·외부 심사를 거쳤다. 심사 과정에서 주민 편의 증진, 사업의 효과성, 창의성 및 전문성,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행정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후보 10건을 엄선했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 오른 ‘10대 우수시책’은 행정, 복지, 농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주요 후보는 ▲군민 밀착형 양방향 소통 창구인 ‘유난히 좋은 날, 바로폰 운영’ ▲소아과 상시진료 운영 개시 ▲‘농촌유학마을 조성’으로 작

은학교 살리기 ▲청년과 기업 유치를 위한 ‘곡성형 위케이션 운영’ 등이다.

또한 농업 및 경제 분야에서는 ▲농가 인력난 해소의 일등공신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한 ‘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지역 상권 활력 프로젝트(축재장-아시장-읍내상권 연계) ▲조직화된 블루베리 조기재배·장기출하 체계 정착 등이 이름을 올렸다.

투표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 참여는 곡성군 누리집 내 설문조사 코너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참여는 관내 17개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조사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군은 이번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군 누리집과 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군민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얻은 시책은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 설정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성대 곡성군수는 “이번 선호도 조사는 군민들이 직접 체감한 성과를 평가받고 소통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선정된 우수 시책들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군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지난해 열린 ‘육아용품 나눔 장터’

담양군, 오늘 ‘육아용품 나눔 장터’ 개장
보건소서...판매 수익금 아동시설 기부

담양군은 27일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 재활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8일 보건소 1층 건강증진실에서 ‘사랑나누기 행복더하기 육아용품 나눔 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가 성장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육아용품을 기증받아 필요한 가정에 무료로 나누거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장터 운영을 통해 발생한 판매 수익금 전액은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박주호 담양군보건소장은 “이번 행사가 육아 물품의 순환뿐만 아니라 부모들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어르신 지원 ‘마을활동가’ 2기 운영

성과공유·신규 19명 위촉...복지사각해소
구례군이 어르신들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을활동가’ 운영을 강화한다.

27일 구례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군 노인회관에서 ‘2025년 어르신 생활을 돕는 마을활동가 활동보고회 및 2기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활동가와 읍·면 담당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난 1년간의 활동 성과와 소감

을 나누고, 새롭게 위촉된 2기 활동가 19명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마을활동가는 읍·면사무소와 협력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복지 서비스 안내와 취약계층 어르신의 행정 업무 대행, 고지서 납부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기는 2년이다. 또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지역 자원과 연계해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가교 역할도 수행한다. /구례=임종길 기자



보성군 숲 가꾸기 부산물로 ‘사랑의 땀감’ 나눔

42가구에 42t 지원...난방비 절감
보성군이 숲 가꾸기 사업에서 나온 부산물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27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난방 취약계층 42가구에 화목용 땀감 42t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땀감은 숲 가꾸기와 임도 개설 등 산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공

공 산림 가꾸기 근로자들이 수거해 땀감용으로 알맞게 가공한 것이다.

군은 읍면별 추천을 통해 선정된 42가구에 각 1t씩 직접 땀감을 배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산림 내 인화 물질을 사전 제거해 산불 위험을 낮추고, 병해충 예방 및 경관 개선 효과까지 거두는 대표적인 자원 순환형 산림 복지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보성=임병언 기자

화순군 ‘써모피셔’ 기술센터 구축...바이오 거점 우뚝

생물의약품산업 내 개소...130억 투자
첨단 장비 구축, 기업 지원·인력 양성

화순군이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인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의 기술협력센터를 유치하며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에서 구북규 군수와 김기홍 전남도 전략

산업국장, 윤우종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코리아 부사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이번 센터 개소는 지난 1월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이 화순군·전남도와 체결한 투자협약의 결실로, 화순생물의약품산업단지 내 바이오의약품부 창업보육동 2층(832㎡)을 리모델링해 공간을 마련했다.

써모피셔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9년까지 총 130억원이 투입해 ▲세포 분석 ▲세포 배양 ▲

유전체 분석 등 첨단 연구 실험실을 운영하며, 이곳을 거점으로 지역 바이오 기업에 대한 기술 교육, 장비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경 화순군 바이오백신담당관은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는 화순 바이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라며 “기술협력센터가 지역 기업과 연구자들을 잇는 혁신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지난 25일 열린 ‘써모피셔 사이언티픽 기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구북규 화순군수와 홍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화순군 제공〉